휴지통 없앤 화장실, 공중도덕도 없어졌네

담배꽁초·생리대에 변기 막히고 역류…바닥엔 쓰레기 '수북'

광주 구청마다 관리 하소연…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취지 무색

지난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청 7층 남자 화장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 누군가 버린 뭉텅이 휴지 때문에 변기가 막히면서 변기의 물이 역류해 화장실 바닥으로 넘쳐 흐른 것이다.

화장실을 찾은 시민들은 경악했고 바닥을 보지 못한 일부 시민은 이물질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이때 흘러내린 물과 이물질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풍겼다.

광주의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화장실의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앤 후 변기가 막히고 넘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막힌 변기에서는 생리대부터 스타킹, 물에 잘 녹지 않는 페이퍼 타올, 물티슈, 담배꽁초는 물론 기저귀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용변을 닦은 화장지 등 각종 쓰레기를 변기주변 바닥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게 화장실 청소원들의 하소연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휴지통을 없앤 이후 구청 내 화장실의 변기가 층별(5층~9층)로 하루 2차례 정도 막히고 있다"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했다. 휴지통을 없애 악취나 해충 발생을 방지,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다.

광주 각 구청은 시행령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했다. 남자 화장실에도 세면대 옆 등에 일반 휴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배치했다.

이런 조치는 각 구에 등록된 공중화장실에 모두 적용됐다. 화장실은 ▲광산구 90곳 ▲북구 64곳 ▲서구 50곳 ▲동구 21곳 ▲남구 17곳 등 242곳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지역 공공화장실의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 이후 변기가 막히고 화장실 바닥에는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화장실 이용객은 물론 청소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이용객들이 이물질을 변기 안으로 투척하거나 각종 쓰레기를 변기가 아닌 화장실 바닥에 그냥 버리고 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자치구에서는 일부 시민의 실종된 시민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변기 옆 휴지통 없는 공공화장실' 이용 에티켓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오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배관이 노후한 데다 관의 지름도 얇아 약한 수압 등으로 변기 막힘 현상이 더 심각해 단계적인 배관교체 등 개선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광주시는 변기 막힘 현상을 막기 위해 물에 잘 녹는 고급형 화장지까지 배치했지만, 이마저도 변기 등을 닦는다며 많은 양의 휴지를 사용하고 버리는 바람에 변기 막힘의 주범이 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나 해충 등이 발생하기도 해 위생 관리 차원에서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앴지만 하루 2건 이상 변기가 막히고 있다"며 "공공화장실이 자신의 집 화장실이라는 생각으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 배치는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신문지나 품질이 나쁜 휴지 사용 등에 따른 하수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조치로 이뤄진 게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16일 광주시 남구청사 내 남자 화장실에서 한 청소원이 변기를 청소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구청들 "자동차 번호판 업체 폐업 근본대책 세워라"

市, 폐업 철회 안하면 재공모 방침

신규 차량 운행 중단 현실화 우려

광주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들이 최근 폐업신고를 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대란이 우려되자 광주시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일보 1월 16일자 6면〉

광주시는 업체들이 폐업 철회를 하지 않을 땐 재공모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자가용 승용차, 시내버스·택시 등 신규 영업용 차량 운행 중단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폐업이 현실화하면 직격탄을 맞게될 각 구는 광주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번호판 교부는 각 구청에 마련된 교부소에서 처리된다.

광주시는 16일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폐업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철회를 하지 않을 땐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경우 지난 2016년 말 '광주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대행업체들이 주장하는 수수료 현실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들의 사정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수수료 현실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구청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촉구하고 있다.

당장 광주시 5개 구청에서 일일 150여건의 번호판 발급 업무가 중단되면 민원인의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서다.

구청은 관련 조례상 협약 대상자는 광주시와 대행업체로, 번호판 발급업무만 맡는 구 입장에선 뾰족한 대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광주시 모 구청 관계자는 "폐업이 현실화하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의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각 구간 자체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을 맡고 있는 3개 업체는 지난 12일 광주시에 폐업신고를 했다.

시가 제작 원가 이하의 낙찰을 유도하는 입찰방식을 적용해 수년 동안 적자가 누적돼 한계가 달했다는 이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복지예산 빼돌린 초등 담임교사 해임

학교 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을 빼돌린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갖고 희망교실 예산 50만원을 유용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여)씨에 대해 배제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배제징계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것으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이 해당한다.

또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과금 150만원을 부과하고 A씨가 챙긴 토요일 초과근무수당 18만원도 회수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또래 상담이나 레크리에이션, 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희망교실 사업비 5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비로 남편 안경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먹을 피자를 구입하는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교실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멘토로 나서 지원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차에 걸쳐 6839개 희망교실을 선정했으며 총 32억 2780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만큼 지급해야"

대법 판결…택시기사들 승소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새로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한 뒤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황모(63)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더 받아야 하는 수당 액수를 결정한 원심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황씨 등이 받아야 할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먼저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1.5배를 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 협상은 2010년 단체협약으로 2012년 6월까지 연장됐는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110원까지 올랐고, 2011년에는 다시 4320원까지 늘었다.

이 회사 대표 변모씨는 2011년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황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군내버스 빗길 미끄러져 탱크로리 충돌 12명 부상

16일 오전 7시 50분께 보성군 노성면 1차선 도로에서 전모(45)씨가 몰던 군내버스와 임모(49)씨가 운전하던 1t급 탱크로리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모(81)씨 등 버스 승객 11명과 탱크로리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비가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버스가 미끄러져 탱크로리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폭설 속 상가서 돈 훔친 도둑, 눈에 찍힌 발자국으로 '덜미'

쌍나팔

○…폭설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해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눈에 찍힌 발자국 때문에 덜미.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서모(39)씨는 폭설이 내리던 지난 11일 오후 8시 45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철물점에 몰래 들어가 주인 박모(여·54)씨가 아들 유학자금으로 장판 밑에 숨겨둔 현금 2000만원(5만원권 400매)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주변 쌓여있는 눈에 찍힌 서씨의 발자국을 통해 침입·도주 경로를 확인,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범행장소에서 1㎞ 떨어진 모텔에 숙박하고 있던 서씨를 검거.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 삼성전자 – 120만평
▶ LG전자 – 110만평
▶ 송탄역/진위역 5분
▶ 미군기지
▶ 평택 항
▶ 고덕신도시 520만평

▣ 총 7필 지 분양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완료

1필지(약 200평)
★ ~~평당 200만~~
할인 13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①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 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경매교육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광산구 신가동 대방노블랜드 (33평)
감정가 3억7백 → 최저가 2억1,500만
② 광산구 수완동 우미린 (33평)
감정 3억 → 최저 2억1천
③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 5천3백 → 최저 2천9백

[사무직 (여)경리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600만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최저가 1억4천4백

3) 화순 도곡 천암리 (무인텔)
감정가 37억4천 → 최저가 20억

4) 서구 치평동 금호쌍용 아파트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6) 동구 산수동 (상가주택)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7) 광산구 비아동 (주유소)
토지 546평 건물 178평
감정가 18억8천 → 최저가 18억8천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8천

9)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가주택)
건물 427평 토지 189평
감정가 19억8천 → 최저가 9억 7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3천

11) 전북 군산시 평화동 (3층 상가)
건물 336평 토지 189평
감정가 12억 → 4억 1천

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
①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 (24평)
감정 1억6천 → 최저 1억1천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24평)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③ 서구 치평동 상무리채 아파트 (10평)
감정 8천7백 → 최저 6천1백
④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⑤ 북구 운암산코아루렉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⑦ 서구 화정동 (주택)
감정 2억4천 → 최저 1억6천5백
⑧ 서구 마륵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1억3천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7억6천
⑩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지 465평)
감정 2천7백 → 최저 2천
⑪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노유자시설)
감정 9억3천 → 최저 5억2천
⑫ 전남 영암군 삼호읍 (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 6억6천

010-6670-9800 010-7384-7800